

유기체적 삶의 변화와 Dewey의 탐구 개념에 관한 고찰

- Dewey의 LOGIC:
THE THEORY OF INQUIRY을 중심으로 -

이 상 원*

〈목 차〉

I. 서론	3. 적응에 있어 쓸모로서의 중요성: 가치와 탐구의 관계
II. 탐구의 의미와 중요성	4. 환경에 대한 적응의 누적성: 성장과 탐구의 관계
III.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제개념과 탐구의 관련성	IV. 결론
1. 환경에 대한 적응의 산물: 경험과 탐구의 관계	참고문헌
2. 효율적인 적응을 이끄는 유기적 행위 양태: 습관과 탐구의 관계	Abstract

I. 서론

Dewey의 탐구 개념은 그의 후기작인 LOGIC: THE THEORY OF INQUIRY에서 집대성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LOGIC의 부제목을 ‘탐구이론’이라고 명명할 만큼 자신의 철학적 논리를 인간 삶의 과정을 순수하게 사변적인 형식으로 밝혀내고자 한 희

* 북대구초등학교 교사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Dewey의 철학을 중심으로 한 탐구 개념과 그의 제개념들 간의 관련성이다.

랍철학과는 달리 삶의 행위 속에서 발견해 내고자 하였다. 삶의 행위 과정은 환경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삶을 유지해내야만 하는 인간을 위시한 유기체의 적응¹⁾이기도 하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은 미시적으로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형성한 문화이기도 하며, 거시적으로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기체의 존재유지이기도 하다. 유기체의 적응, 즉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극적인 대처 능력이 Dewey가 의미하는 ‘탐구’일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한다. 이에 대해 Dewey(1964: 23-59)가 LOGIC에서 탐구의 존재론적(existential) 모체(matrix)를 ‘생물학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에게 탐구의 준거는 양 측면을 모두 내포한 것이다. 탐구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탐구를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 내지 문제해결력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탐구를 ‘문화적인 측면’에만 국한시켜 파악한 연유이다. 탐구의 근거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밝힐 경우, Dewey의 탐구 모체 중 하나인 ‘생물학적인 측면’은 간과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Dewey의 탐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 즉 유기체의 존재유지를 위한 삶의 필연적인 존재방식으로 밝히고자 한다. 탐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경우 여타 유기체와 구별되는 인간이 형성해낸 ‘문화’의 의미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 즉 문화의 의미는 제한적으로 언어를 유일하게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종(種)이 형성해낸 정신적·물질적인 산물이지만, 거시적인 의미로써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의 산물인 것이다.

Dewey의 탐구가 삶의 존재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존재방식이라면, 그의 삶과 관련된 제개념들인 경험, 습관, 가치, 성장이 탐구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밝혀내야만 그의 탐구가 유기체에게 삶의 양태(樣態)로써 타당성을 지닌 개념이 될 수 있다. 경험, 습관, 가치, 성장과 탐구는 분절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존재유지에

1) Dewey에게 적응(adaptation)은 어떤 의미인가? Broudy(1960: 41)는 그의 논문에서 Dewey의 적응을 고정된 환경에 대한 정적인 적응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진술하고 있다.

있어 공존하는 개념들이다. 즉 경험, 습관, 가치, 성장은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를 통해 형성됨으로써 환경의 변화에 유기체가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된다. Dewey의 경험, 습관, 가치, 성장은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그의 탐구는 유기체에게 삶의 양태인 것이다. 탐구와 경험, 습관, 가치, 성장의 관련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III장인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제개념과 탐구의 관련성’에서 하고자 한다.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는 ‘삶의 전반’에서 바라보아야만 한다. 이에 대해 Dewey(Ibid. : 102)는 “탐구를 생활의 모든 국면과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Dewey에게 탐구는 삶의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양태이기에 탐구를 특정한 국면에만 국한시켜 해석할 경우, 그의 탐구의 원취지(原趣旨)는 지엽적인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즉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존재유지 방식인 탐구를 단지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 내지 문제해결력으로 해석하게 되면, Dewey의 탐구는 유기체의 생존에 관련된 ‘존재론적(existential)’인 개념이 아닌 ‘인지적인 개념’으로 오역될 소지가 있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Dewey의 탐구를 삶의 필연적인 존재방식, 즉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기에 탐구를 ‘인지적인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김민남(1971: 70-80)은 탐구활동의 소산이 지식이며, 지행위를 효율적으로 이루게 하는 이론이 탐구이론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Kaufmann(1959: 826-836)는 탐구를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내는 인지적인 조작의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탐구의 결과로 인해 지식이 형성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Barrett(1941: 305-315)는 탐구를 문제적 상황과 확정적 상황에 국한시켜 파악하고 있어 탐구를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방법론으로 제한시키고 있다. 정호표(1987: 179-195)는 Dewey의 교육목적론의 일반적 성격을 가치의 탐구이론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으나, 그가 분석한 가치의 탐구이론은 규범적인 지식을 사실적인 지식의 형성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탐구이론의 의미를 문제해결의 효율적인 과정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그리고 김대호(1975: 61-68)는 언급된 선행연구와는 달리 탐구를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어 Dewey의 탐구의 존재론적 모체 중의 하나인 ‘생물학적인 측면’을 염두해 두고 있다. 그러나 그가 분석한 Dewey의 탐구에서는 탐구가 유기체의 생존에 있어 불가피한 존재방식임을 밝히는 진척된 논의는 없다.

위의 선행연구에서는 탐구를 ‘인지적인 측면’에서 지식의 획득 방법, 문제해결력, 교육목적과의 관련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탐구를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도 분석하고 있지만, 탐구를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기체의 존재유지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Dewey의 탐구를 유기체의 존재유지 방식으로 파악하지 않기에, 탐구는 그의 경험, 습관, 가치, 성장 개념과 관련성이 없는 독립된 개념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Dewey의 탐구를 유기체의 존재유지 방식으로 해석하기에, 탐구는 그의 경험, 습관, 가치, 성장 개념의 이면에 내재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삶의 양태인 탐구는 경험, 습관, 가치, 성장 개념을 형성케 한 모체 개념인 것이다. 연구자는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과정, 즉 삶의 양태로써 탐구가 타당성을 지닌 개념인지를 밝히고자 Dewey의 여러 저서 중 탐구를 직접적으로 다룬 LOGIC: THE THEORY OF INQUIRY를 중심에 놓고 탐구를 ‘유기체적 측면 (organical aspect)’에서 파악하였다.

II. 탐구의 의미와 중요성

삶이라는 것은 우연적인 사건의 연속성에서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맺음을 통해 유기체가 스스로를 재구성해가는 과정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유기체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지난

수억 년간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기체들은 출생과 죽음을 반복해 오면서 환경에 대해 적응해 왔다. 적응에서 도태된 유기체는 환경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자연의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 유기체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 유기체가 환경에 대해 적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환경 속에 생활하는 것이 적응인지, 환경을 매개로 해서 유기체의 행동방식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적응인지를 파악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Dewey는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유기체의 삶이건 아니건 간에 연속성은 환경을 포함하는 행위의 과정이다. 연속성은 유기체의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교변 확장(transaction extending)이다. 유기체는 환경 속에서(in) 살지 않는다. 유기체는 환경에 의해서(by means of) 살아간다. 호흡, 음식섭취, 소비물의 배설은 직접적인 통합의 사례들이고, 혈액의 순환, 신경조직의 활동은 비교적 간접적인 사례들이다 (Dewey, 1964: 25).

‘유기체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는 Dewey의 진술은 유기체는 공간적 제약에 구속된 존재가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유기체가 공간에 구속된 존재라면 유기체는 단지 주어진 조건에 자신을 맞추는 수동적인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유기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환경의 제요소들을 끊임없이 존재유지를 위한 요소로 전환시켜 나간다. 따라서 유기체의 존재유지, 즉 적응의 의미를 Dewey는 ‘유기체는 환경에 의해서 살아간다’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해일(2009: 75)은 존재론적으로 유기체는 활동으로 규정되기에 활동을 통해 환경을 수단으로 하여 환경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환경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의 의미와 상반되는 개념은 무엇이며, 그 개념에 대해 Dewey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Dewey는 유기체의 환경에 대한 적응의 의미와 상반되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Eugeni Rignano의 생물학적 설명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

Rignano는 사과의 생물학적인 면에 공헌도가 있는 논문에서 유기체는 정적인 상태(stationary state)로 머물러 있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등 유기체의 활동을 증거로 제시하며, 정적인 상태가 방해 받을 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행위들을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논문에서 “이전의 생리학적 상태는 동물이 예전의 환경과 동일한 환경으로 성공적으로 다시 움직일 때까지 완벽하게 재구성 될 수도 없고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의 입장은 이 텍스트(Logic)에서 말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취한 입장은 환경과 유기체 간의 통합된 관계(integrated relation)의 구성이 아니라 유기체의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강조한다. 후자의 관계를 구성해 내는 것은 유기체와 환경 양자의 변화를 따로 성립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Dewey, 1964: 27-28).

Rignano의 입장에서 유기체의 환경에 대한 ‘적응’은 유기체의 정적인 상태가 깨어졌을 때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Dewey와 Rignano의 논리의 차이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있다. Dewey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합의 관계’에서 바라보았으며, Rignano는 유기체와 환경을 통합이 될 수 없는 ‘양립의 관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Rignano의 논리에서 유기체의 환경에 대한 적응은 Dewey가 의미하는 적응의 개념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일방적인 행위인 ‘조절’일 것으로 판단된다. Dewey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합의 관계로 바라본 것은 Darwin의 진화론의 영향이 크다고 여길 수 있다.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은 특히 변화와 발전의 개념으로 요약된다. 연속적인 변화의 누적은 그것이 비록 작은 변화라고 할지라도 모든 종(種)의 내부에서 환경에 대해 적응을 잘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적응에 적합한 형태의 새롭고 고등한 종들을 발생시킨다. 이런 변화를 통하여 유기체는 발전하게 된다.”(진교훈 역, 1983: 171) 이렇듯 Darwin의 진화론의 ‘변화’와 ‘발전’의 개념은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가 양립된 상태에서는 도출될 수 없으며, 통합의 관계에 놓여야지만 도출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Darwin에게 유기체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 가장 적합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해가는 존재가 될 수 있

다. 그렇다면 Dewey에게 유기체와 환경의 통합적 관계는 어떤 형태로 유기체에게 존재하며,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를 통합적 관계로 이끌어하는 기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변화된 적응양태(a mode of adaptation)는 유기적 진화(organic evolution)라고 일컬어지는 확장적인 발달의 근원이 된다.”(Dewey, 1964: 28)는 Dewey의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에 관한 언급에서 유기체와 환경의 통합적 관계가 유기체에게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Dewey에게 유기체와 환경의 통합적 관계는 유기체에게 환경에 대한 ‘적응양태’로 존재하게 되며, 이 적응양태로 인해 유기체는 환경과 통합된 상태인 ‘유기적 진화’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Dewey가 유기체의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환경과 유기체의 관련성을 언급한 이유는 그에게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삶의 양태가 탐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Dewey는 유기체의 삶의 양태인 탐구를 “계획된 목적에 의해 통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탐구는 생명체의 활동 속에 존재하는 결과에 대한 수단으로써의 적응이다.”로 진술하고 있다(Ibid.: 19). 따라서 Dewey에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유기체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유기체 내에 환경에 대한 적응양태가 체계화된 형태로 내재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그 적응양태는 탐구인 것이다. 그리고 Dewey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과정에서 탐구가 지니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유기체와 환경의 혼란된 관계를 안정시킬 때에, 탐구는 이전의 적응된 통합의 순환에 의해서 단지 의심을 제거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환경 조건을 구성한다. 이 과정동안 유기체가 학습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형성시키는 새로운 힘을 창출하는 것이다 (Ibid.: 35).

유기체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것은 현 상황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대해 유기체가 삶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삶의 조건의 재구성은 Dewey에게는 탐구이다. 그러기에 Dewey는 탐구를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환경 조건을

구성하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형성시키는 새로운 힘’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필요한가? Dewey는 탐구를 유발시키는 상황을 ‘불확정적 상황(indeterminate situation)’²⁾으로 언급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탐구와 질문(questioning)은 같은 말이다. 우리는 의문을 제기 할 때 탐구를 한다. 우리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무엇이든지 찾으려고 할 때 탐구를 한다. 따라서 의심스럽다는 것은 탐구를 발생시키는 불확정적 상황의 본질이다. 의심스럽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잠재적 실현성이나 불확정적, 미해결, 혼란스러움이 아닌 실제성(actuality)이라는 용어가 될 수 있다. 주어진 대상에 관여된 탐구의 자질은 상황을 구성하지만 그 자질은 단지 불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탐구의 자질은 상황을 그러하게 만들어주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게 만들어주는 그 상황만의 독특한 의문성(doubtfulness)이다 (Ibid.: 105).

Dewey에게 ‘불확정적 상황’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에게 탐구가 발생되게 하는 그 상황만이 지니고 있는 의문성이자 고유성인 것이다. Dewey는 고유성이 없는 상황에 대한 탐구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만약 하나의 상황이 그 자체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상황에 대한 고유성을 특징지어주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완전한 혼란이 될 것이며 그것에 대해 답을 구하는 것은 맹목적이거나 굉장히 폭력적인 형식을 취하게 된다(Ibid.: 105).

2) Dewey에게 불확정적 상황은 인지적(cognitive)으로 불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existential)으로 불확정적인 것이다. O'Connor(1953: 759)는 Dewey의 'Indeterminate situation' 내지 'Doubtful situation(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우리는 상황이 본래적으로 의심스럽기 때문에 의심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상황을 당혹스럽게 하는 어떠한 것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던 간에 상황은 그 자체가(per se) 의심스러운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Dewey에게 상황은 유기체가 인식하든 하지 않던 간에 본래적으로 불확정적이며 의심스러운 것이다. Dewey의 상황 개념은 시초부터 완전한 확정적인 상태나 존재는 없으며, 단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달한다는 Darwin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유성이 없는 상황은 유기체의 의문을 유발시킬 수 없는 완전한 혼돈의 상황이다. 따라서 Dewey에게 ‘불확정적 상황’이 유기체에게 있어 의문을 유발시키는 상황이라면, 그 의문은 유기체에게 있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유기체의 ‘의문의 형태’에 대해 Dewey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Ibid.: 106). 유기체에게 있어 ‘불균형’은 곧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부적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기체의 삶은 생존과 관련되기에 환경에 대한 생존 조건을 변화시켜야만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 즉 변화하는 환경의 구성요소를 유기체의 존재유지를 위한 요소로 전환시켜야만 유기체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탐구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불균형’의 상태를 ‘균형’의 상태로 전환시켜 유기체의 존재를 유지하는 삶의 양태인 것이다.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환경은 인간을 위시한 유기체가 존재를 유지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환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간다. 환경의 변화에 대해 유기체는 끊임없이 갱신의 과정을 거쳐야만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유기체의 갱신과정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과정인 탐구이다. 탐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① 탐구는 유기체와 환경의 통합적 관계에서 형성되어진 상호작용의 산물로써 이로 인해 유기체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가 있다.
- ② 탐구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 유기체가 존재유지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생존의 중요한 적응양태이다.
- ③ 탐구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불균형의 상태를 균형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존재유지의 과정이다.

따라서 탐구는 유기체에게 환경의 변화에 대해 삶을 영위하게 하는 생존의 불가피한 존재 방식이 된다.

Ⅲ.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제개념과 탐구의 관련성

삶은 끊임없이 변화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기에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유기체의 삶의 형태는 달라진다. 유기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환경의 구성요소들을 자신의 존재유지를 위한 요소로 전환시켜 나간다. 전환의 기제는 유기체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다. 유기체와 환경의 관련성을 철학적 논리의 토대로 삼고 있는 Dewey에게서 이 전환의 기제는 탐구일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한다. 탐구가 유기체의 존재유지를 위한 삶의 양태라면 탐구는 유기체의 삶의 국면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즉, 유기체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당면하게 되는 문제적 상황에서 탐구를 효율적인 형태로 구현하게 된다. 탐구의 구현된 형태는 Dewey에게 경험, 습관, 가치, 성장의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유기체의 삶의 변화인 적응을 이끄는 Dewey의 개념을 경험, 습관, 가치, 성장으로 국한시켜 각 개념들의 기저에 탐구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 환경에 대한 적응의 산물: 경험과 탐구의 관계

인간을 비롯한 유기체는 환경과의 관련성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다. “유기체와 환경의 관련성은 유기체와 환경의 연속성(continuum)의 개념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분절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김민남, 1971: 3) 유기체의 환경에 대한 활동이 연속적으로 구성되기 위해선 각각의 상황에 대한 활동이 산발적으로 흩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의 유기체의 활동이 연속성을 띠기 위해선 각각의 활동의 결과를 체화된 형태³⁾로 축적시켜야만 한다. 체화된

3) 연구자는 이정모 교수의 “마음의 체화적(embodied) 접근: 심리학 패러다임의 제6의 변혁”에 소개되어 있는 ‘체화된 인지’에서 ‘체화’의 의미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통해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의 관점에서 ‘체화’를 Dewey의 ‘경험’ 개념과 연관시키고자 한다. “Bem & Keijzer(1996)에 의하면, 현재 심리학과 인지주의가 과거 1950년대의 인지주의

형태란 유기체가 환경과의 관련성에서 한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로써 획득된 것이 통합된 상태이다. 유기체의 체화된 상태는 Dewey의 철학적 개념들 중 '경험'과 관련이 있다. Dewey(1920: 86)는 경험을 특정 대상에 대해 시도해 보는 것과 시도해 본 결과로 겪게 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엮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Dewey의 경험 개념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해서 형성된 것이기에 경험은 전적으로 유기체의 행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행위의 대상인 환경의 변화도 관련되어 있다. 즉, 경험으로 인해 유기체는 자신의 행위를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환경⁴⁾의 구성요소도 재구성하게 된다. Dewey는 유기체와 환경 양자의 변화를 '적응'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에게 적응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활동을 환경에 적응시키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활동에 환경을 적응시키는 것이다."(Dewey, 1916: 56) 따라서 Dewey의 경험 개념을 유기체와 환경 양자의 변화인 통합의 관점에서 파악할 경우 그의 경험 개념은 유기체의 환경에 대한 적응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경험은 탐구와 연관성이다. 즉 유기체와 환경의 균형의 고리가 깨어지면 유기체는 불균형의 상태를 균형의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응과정을 새로이 시작하게 된다. 균형의 상태로 전환하

출발과 떠오름 시점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전기를 맞고 있으며, 그것은 철학과 심리학, 인지과학에서의 전통적인 데카르트적 존재론/인식론에 바탕한 마음(Mind)의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구체적인 '몸'이라는 실체를 통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출현하는 인간의 적응 '행위'로서의 '마음'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계기라고 말하고 있다."(이정모, 2008: 146) 이와 같이 Bem & Keijzer는 체화된 인지를 몸이라는 실체를 통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적응 행위로서의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체화는 곧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기체의 적응으로 여길 수 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유기체의 행위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행위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행위의 통합으로 구성되어진다. 따라서 체화는 특정 상황에 대한 유기체의 행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유기체가 겪게 되는 반응과 통합되어진 경험의 방식과 동일한 형태를 띠게 된다.

4) Dewey의 환경 개념은 일반적인 자연(Nature)의 의미와는 다르다. Dewey(1964: 106)는 환경에 대해 "유기체와 자연이 상호작용으로 관계되어져 있을 때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에게 환경은 자연과 같이 주어진 대상이 아니라 유기체와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진 삶의 터전이다.

기 위해 유기체는 이전 상황의 적응과정에서 획득한 경험을 불균형의 상황에서 이용하게 된다. 경험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연속성에 의해 확정된 형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맞춰 변하게 된다. 따라서 유기체의 환경에 대한 적응양태인 탐구는 경험의 재구성으로 인해 이전의 탐구 과정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탐구의 산물인 경험은 유기체가 환경에 얼마만큼 노출되느냐에 따라 그 질은 달라진다. 즉 환경과의 관계맺음이 얼마나 능동적이냐에 따라 경험은 차후의 탐구에 연속성을 지닐 수가 있다. 적응과정에서 경험이 효율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야만 유기체는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경험은 유기체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 Dewey는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생존'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생존한다는 것은 행위들의 어떤 관련된 연속성으로 인해서 선행하는 행위들이 나중의 행위가 일어나는 조건을 준비하는 데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무생물에게 일어나는 일에도 어떤 인과 관계의 고리는 있다. 그러나 생명체에게 그 연결 고리는 특별한 형태로 누적적인 연속성을 갖는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Dewey, 1929: 179).

유기체의 삶의 전반에서 생존을 바라보아야만 생존은 유기체의 삶의 과정 속에서 특별한 형태로 누적적인 연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 특별한 형태는 Dewey에게 경험의 형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현 상황의 적응의 결과로 형성된 경험은 차후 상황의 적응에 이용됨으로써 경험은 연속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생존은 삶의 연속성으로 인해 유기체의 적응과정에서 '경험'이라는 실체적인 개념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에 대해 Dewey는 LOGIC: THE THEORY OF INQUIRY에서 일반적 정의를 하고 있다. 그의 탐구에 대한 정의를 통해 경험을 탐구의 산물로써 해석하고자 한다.

탐구란 원래적 상황(original situation)의 제요소를 통합된 전체로 전환시키기 위해 불확정적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개별성(distinctions)과 관계성

(relations)을 확정적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통제적이며, 지도적인 법칙이다 (Dewey, 1964: 104-105).

Dewey의 탐구는 ‘불확정적 상황’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확정적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불확정적 상황을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된 ‘불균형’으로 파악한다면, 확정적 상황은 불균형이 ‘균형의 상태’로 전환된 상황일 것이다. 이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 유기체가 적응해 나가는 과정 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불균형을 초래한 요소들의 관계를 균형의 상태로 전환시키고자 유기체는 구성요소들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를 하게 되며 그 행위의 결과로 유기체는 구성요소들을 재설정하게 된다. 재설정의 과정을 효율적이게 한 유기체의 행위는 경험의 형태로 누적되며 차후의 불균형의 상황에서 연속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에서 경험은 적응의 과정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경험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기체의 행위와 행위의 결과가 총체적으로 엮어진 상태이다. 이돈희(1994: 88-89)는 ‘경험의 총체성’에 대해 경험은 능동적인 행위와 수동적인 행위의 기계적인 차례나 순서가 아니라, 이 양자는 복잡한 질적 관계의 형태와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돈희의 경험에 대한 해석에서 ‘복잡한 질적 관계의 형태와 구조’를 Dewey의 탐구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는 ‘유기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이 단선적인 형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존재유지라는 총체적인 맥락성에서 복합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므로 경험은 대상에 대한 행위들의 단순한 결합적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다. Dewey는 경험의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의 결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대상은 우리의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은 조장하며, 검토하고 어떤 것은 억제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수정해 간다. 이와 같이 대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것은 수동적인 정신에 여러 성질의 인상이 찍히는 것과는 다르다)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가 사물에게 할 수 있는

일과의 결합이 바로 경험을 구성한다(Dewey, 1916: 317).

경험의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의 결합은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가 일방적인 방식으로 형성될 수가 없다. 즉 경험은 환경에 의해 유기체의 변화된 측면과 유기체의 의해 환경의 변화된 측면이 적응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분모로 향해 기계적인 방식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갱신’이라는 질적인 방식으로 결합된 것이다. 두 측면의 결합이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유기체의 행위는 무질서한, 산발적인 형태를 띠게 되어 유기체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도태되게 된다. 송도선(2004: 73)은 두 측면의 무의미한 결합을 경험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후속하는 경험의 방향을 지도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탐구에 있어서 경험은 유기체의 존재유지 과정인 삶의 전반에서 파악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Dewey(1964: 66)는 경험을 우리는 결코 고립된 상태에서 사물 또는 사건에 대해 경험할 수 없으며, 단지 전체적인 맥락성(contextual whole)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는 유기체 삶의 전반에 내재되어 있다. 탐구를 통해 유기체는 존재를 유지하게 되어 삶을 영위하게 된다. 탐구는 유기체와 환경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존재론적인 개념이기에 탐구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기체에게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다양한 형태의 구현 중의 하나인 경험은 환경에 적응된 유기체의 탐구의 산물인 동시에 차후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탐구에서 신속한 적응을 위한 발판이 된다.

2. 효율적인 적응을 이끄는 유기적 행위양태: 습관과 탐구의 관계

‘습관’은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활동에서 비롯된 유기적인 행위양태이다. 습관은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활동이 매개가 되어 형성된 것으로 유기체와 환경의 관련성을 전제로 한다.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활동과

그 결과들 중의 하나인 습관은 유기체의 존재유지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습관은 단순히 특정 행위를 반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 유기체의 행위들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형성된 관계적 요소의 반복인 것이다. 습관이 단순한 반복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관점에 대해 Dewey(Ibid.: 32)는 말 앞에 수레를 놓는 것과 같이 본말이 전도된 상태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Dewey에게 습관의 반복적 속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Dewey(Ibid.: 32)는 습관의 반복하는 능력은 유기체의 활동이 환경과 완전히 통합된 상태(consummatory closed)에서 유기체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형성된 결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습관은 단순한 행위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 결과가 아닌 유기체와 환경의 유기적인 관련성에 의해 형성된 결과이다. 습관 형성에 있어 유기체의 모든 행위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유기체의 특별한 형태의 행위만이 습관 형성에 관여된다. 그 특별한 형태의 행위는 반드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형성되어야만 한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체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환경의 변화에 유기체가 적응하기 위해선 행위의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은 질적인 통합을 이루어야만 한다. 행위의 질적인 통합은 Dewey의 '경험' 개념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험은 습관의 형성에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경험은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의 산물인 동시에 후속되는 탐구를 위한 발판이 된다. 현 환경의 적응에서 형성된 경험이 후속되는 환경의 변화에서도 연속성을 띠기 위해선 경험은 '습관'이라는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이 때 습관은 고착되어 변하지 않는 '타성'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유기체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기체의 행위를 '통제'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해 Dewey는 습관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첫째, 습관은 일종의 행동기술, 즉 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둘째, 습관은 자연 조건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능력이다. 셋째,

습관은 행동의 기관을 통제함으로써 환경을 능동적으로 통제한다(Dewey, 1916: 54-55).

이와 같이 Dewey에게 습관은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통제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습관의 통제적 기능은 유기체의 단순한 행위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 단순한 행위는 일시적이거나 초점이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유기체의 적응과정에서 형성된 습관은 고착화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 습관이 고착화된다면 환경의 변화에 대해 유기체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습관은 환경과 유기체의 상호작용을 전제한 개념이기에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선 의미가 없다.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습관의 중요성은 “습관은 고정된 반응양태라는 일상적인 의미의 습관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의미의 습관이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습관은 그 뒤에 오는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진술할 수 있다(박철홍 역, 2004: 124).

경험과 습관은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의 산물이다. 탐구가 유기체의 존재유지 방식이기에 경험과 습관은 존재유지를 위한 수단이 된다. 탐구라는 전경(全景)에서 전개되는 유기체의 삶의 과정은 경험과 습관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는 동적인 의미의 개념이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유기체의 탐구의 산물인 경험은 후속되는 탐구에 있어서는 습관의 형태로 유기체의 행위를 통제한다. 경험의 한 양태인 습관은 유기체의 행위들을 통제하여 그 행위들 중 적응에 가장 효율적인 행위를 일정한 패턴을 갖춘 형태로 변형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Dewey(1964: 31-32)는 습관을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활동 중 차후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강화시키고 반복함으로써 형성케 된 유기체의 행동패턴으로 규정짓고 있다. 습관이 유기체의 특정한 행동패턴이라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습관은 경험의 구성요소, 즉 행위의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의 형식이 단순화된 형태로 변형된 것이다. 다시 말해 경험의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

면은 자극-반응(stimulus-response)의 형식으로 습관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습관의 형식인 자극-반응은 생물학적인 자극-반응(excitation-reaction)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Dewey는 습관의 자극-반응을 생물학적인 자극-반응과 구분짓고 있다.

휴식중인 짐승은 감각적인 자극(sensory excitation)에 의해 코를 벌렁거린다(reaction). 이러한 관계가 분리되어지고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사람이 갑자기 놀라운 소리를 들으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단순한 자극-반응(excitation-reaction)일 뿐이다. …… 그러나 동물이 먹이에 대해 추적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때 특별한 감각적 자극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다른 유기적 과정들의 많은 부분과 협응이 된 상태이다. 다시 말해 소화기관, 순환기관 그리고 신경-근육조직, 자율신경, 말초신경, 중추신경이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 협응은 자극(stimulus)으로 구성되는 총체적인 유기적 상태(a state of the total organism)를 지칭한다(Ibid.: 29-30).

자극-반응(excitation-reaction)은 유기체의 생물학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본래적인 것이지만 유기적인 자극-반응(stimulus-response)은 특정 상황과 관련된 행위의 총체적인 상태이다. 습관의 자극-반응을 경험의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과 관련짓는다면, 경험의 능동적인 요소는 습관의 ‘자극’ 형식의 토대가 되며, 경험의 수동적인 요소는 습관의 ‘반응’ 형식의 토대가 된다. 즉 유기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유기적 기관들이 통합된 상태인 것이다. 유기적 기관들의 통합된 상태의 행위가 습관의 자극으로 구성되어진다. 그리고 유기체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 역시 유기체의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유기체가 물질적-정신적 측면에서 겪게 되어 형성된 행위들이 통합된 상태이다. 이 통합된 상태가 습관의 반응인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습관은 유기체가 이전에 획득한 경험을 차후의

변화된 환경에서도 적응의 수단으로써 이용하기 위해 경험의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재설정한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습관은 엄밀히 말해 탐구의 산물인 경험의 한 양태인 동시에 또 다른 탐구에서 경험의 연속성을 이끄는 수단이 된다.

3. 적응에 있어 쓸모로써의 중요성: 가치와 탐구의 관계

“Dewey의 가치는 궁극적 대상으로 선재(先在)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조작되는 것이다. 모든 상황에 고정적이며 직접적인 가치를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기며, 그로인해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즉 가치 자체의 적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도 탐구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지식의 형성과 동일한 사고과정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가치의 적용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 가치의 조작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인식된 가치가 재적응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정호표, 1987: 180) 이를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가치’는 이전 탐구의 산물인 경험과 습관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기체의 재적응에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효율성의 판단인 가치는 환경이 변하게 되면 판단의 관계적 요소를 재설정해야만 적응과정에서 이전에 형성된 경험과 습관이 실효성을 지닌 행위인지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 경험과 습관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인 가치는 유기체의 적응과정에서 ‘행위의 준거’로써 기능하게 된다. 유기체에게 행위의 준거는 곧 적응과정에서의 ‘행위의 쓸모’를 의미한다. 따라서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쓸모’와 관련된 것이기에 유기체의 적응과정에서 ‘수단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렇다면 가치의 수단적인 성격은 Dewey의 가치 개념 중 어떤 가치에 해당되는가? Dewey는 가치를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와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로 구분지어서 언급하고 있다.

내재적 가치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 가치는(내재적인 것으로써) 비교할 수도 없기에 더 많고 적다든가 더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내재적 가치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어떤 대상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과 비교해서 더 좋다고 나쁘다고 여길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를 버리고 다른 것을 획득해야 하는 선택의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에는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다든가, 더 좋고 나쁘다는 식의 기호의 위계가 생긴다. 어떤 대상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 제3의, 다시 말해 그 이상의 목적과 관련해서 평가해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한 가치는 수단이자 도구적 가치가 된다(Dewey, 1916: 279-280).

내재적 가치는 고유한 것이기에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치이며, 수단적 가치는 목적과 관련하여 비교를 통한 선택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는 가치이다. 따라서 유기체의 적응과정에서 행위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인 가치는 Dewey의 '수단적 가치'에 해당된다. 그리고 유기체의 존재유지, 즉 환경에 대한 적응은 유기체의 생존과 관련된 고유한 것이기에 그의 '내재적 가치'에 해당된다.

이전 환경에 대한 적응의 산물인 경험과 습관이 차후의 변화된 환경에서도 실효성을 지닌 것이지는 보증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경험과 습관에 대한 효율성의 판단인 가치는 유기체가 존재유지라는 분기적 상황(forked road situation)에서 불가피하게 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즉 이전에 형성된 경험과 습관이 변화된 환경에서도 유효한지를 적확하게 판단해야지만 유기체는 삶을 보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유효성이 결여된 경험과 습관을 현 상황의 적응과정에서 이용할 경우 유기체는 환경에 대한 적응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 종국에는 도태되게 된다. 이와 같이 유기체의 존재유지에서 가치의 중요성은 유기체의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는 경험, 습관, 가치의 개념들이 상관성을 맺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진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기에 탐구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할 수가 없다. 탐구는 가치로 인해 경험과 습관을 재구성함으로써 변

화되어야지만 유기체는 환경에서 존재를 유지할 수가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탐구의 재구성은 “사용하면서 사용에 의해 개선되는 탐구의 자기-교정성(self-rectifying)”에 해당된다(Dewey, 1964: 6).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는 자기-교정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되어가기에 유기체의 삶은 환경에서 보증된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 보증된 삶은 당위적 의미의 삶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유기체가 존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개연적인 의미이다. 보증된 삶의 의미는 Dewey의 탐구의 결과인 ‘보증된 단언성(warranted assertibility)’의 개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특별한 탐구의 모든 특별한 결론은 계속적으로 개조되어진, 다시 말해 지속적인 관심의 계획의 일부라는 인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성(actuality)보다는 오히려 가능성(potentiality)을 의미한다(Ibid.: 9).

Dewey의 ‘보증된 단언성’은 탐구의 결과의 형태가 확실성이 아닌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유기체가 효율성의 판단인 가치를 적확하게 할 경우 유기체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존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가치는 유기체가 환경의 변화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하는 ‘조작’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적응과정에서 ‘가치의 조작성’은 ‘어떤 것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조종한다’는 일반적 의미의 조작이 아니라, ‘어떤 것이 다음의 상황에서도 실효성을 지닌 것인지를 평가하여 그 구성요소들을 재구성’한다는 ‘지성적 조작’을 의미한다. 가치의 조작성은 Dewey의 수단적 가치 개념의 특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저울질하다(to weigh), 평가하다(to appraise), 추정하다(to estimate)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평가한다(to evaluate)는 것은 명백하게 지성적 조작(intellectual operation)이 이루어진 것이다(Dewey, 1916: 172).

Dewey의 수단적 가치는 어떤 것이 더 적합한 것인가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할 때 상황의 전반을 고려하여 상황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것을

선택하는 ‘지성적인 조작’을 내포한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유기체의 가치와 Dewey의 수단적 가치 양쪽 다 어떤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선택한 것의 구성요소를 목적에 적합하게 재구성하는 일련의 지성적 조작을 거치게 된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가치는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에서 경험과 습관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개념인 것이다. 적응과정에서 적합한 가치는 유기체의 존재유지를 보증한다. 따라서 유기체의 가치는 탐구에서 경험, 습관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4. 환경에 대한 적응의 누적성: 성장과 탐구의 관계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과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체가 존재를 유지하는 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적응과정에서 유기체는 환경과의 관계적 요소를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간다. 특정 상황에 유기체가 적응된 상태를 탐구가 종결된 상황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유기체의 적응의 대상인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탐구는 종결의 의미를 지닐 수가 없다. 즉 유기체와 환경의 관련성을 연속성의 개념으로 파악한 Dewey에게 적응양태인 탐구는 어느 특정한 시점에 국한시켜 끝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는 “어떤 특수한 탐구에서 얻은 결론도 더 진전하는 탐구의 수단의 내용을 채우는 일에 일조한다.”는 탐구의 연속성에 해당된다(Dewey, 1964: 11). 유기체가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응과정에서 형성된 경험, 습관, 가치를 현 상황에 국한된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즉 경험, 습관, 가치를 유기체의 존재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한다면 경험, 습관, 가치는 유기체의 삶에서 연속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경험, 습관, 가치가 유기체의 연속적인 적응의 수단이 되기 위해선 구성요소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야만 한다. 관계의 확장의 형태는 이전의 수많은 적응과정에서 형성된 구성요소들의 관계가 누적된 상태이다. 관계의 누적성으로 인해 유기체는 수

많은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이는 Dewey(1916: 49)의 차후의 결과로 향하는 행위의 누적적인 움직임인 '성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성장은 어느 한 상황에 국한시켜 파악할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파악해야할 개념인 것이다.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유기체가 존재를 유지하는 것은 적응과정에서 형성된 경험, 습관, 가치가 누적된 형태로 지속되기에 가능하다. 유기체의 적응과정에서 성장은 경험, 습관, 가치의 관계적 요소가 누적된 상태를 지칭하기에 '소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장의 소급적 기능으로 인해 이전의 적응과정에서 형성된 경험, 습관, 가치가 적응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력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경험, 습관, 가치의 조력이 적응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였는지는 유기체의 누적된 적응력인 성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적응과정에서 성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선 경험, 습관, 가치의 조력의 정도를 재설정해야만 한다. 이는 Green(1976: 365)의 Dewey의 성장 개념의 비판 중의 하나인 '성장의 방향성에 대한 모호성'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즉 성장을 탐구, 경험, 습관, 가치와 분절된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Green의 지적과 같이 성장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성장을 탐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할 경우, 성장은 이전의 적응과정에서 형성된 경험, 습관, 가치의 관계적 요소가 누적된 상태이기에 유기체는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내는 유기체의 상태를 지칭하기에, 성장은 유기체의 적응과정에서 '효율성'이라는 방향을 지니게 된다.

성장은 이전의 적응과정을 누적한 상태이기에, 성장의 전제는 미성숙의 상태이어야만 한다. 환경에 적응되기전의 미성숙한 유기체는 적응과정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성장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숙을 발전의 가능성을 지닌 의미로 파악해야만 유기체는 존재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능동적인 개체로 규정될 수 있다. 발전 가능성인 미성숙은 Dewey의 성장의 조건인 '미성숙

(immature)’에 해당된다. Dewey는 미성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미성숙의 의미를 성장의 가능성으로 볼 때, 미성숙이란 나중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힘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현재 적극적으로 존재하는 힘을 의미하며 계발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Dewey, 1916: 49).

Dewey에게 있어 미성숙은 ‘성장하려는 힘을 지닌 가능태’이다. 즉 유기체의 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발점인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 있어 미성숙한 존재인 유기체는 적응양태인 탐구로 인해 성장을 하게 된다. 유기체에게 ‘성장’은 이전 탐구에 의해 형성된 경험, 습관, 가치의 관계적 요소가 누적되어 환경의 변화에 대해 ‘최적화된 적응력’을 지닌 상태이다. 유기체의 성장은 미성숙을 전제로 하기에 미성숙한 존재인 유기체는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만 한다.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은 Dewey의 미성숙의 특징 중 하나인 ‘의존성(interdependence)’에 해당된다. Dewey는 의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의존성은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개념이다. 의존성을 소극적인 의미로 볼 때 무력감을 뜻하는 “기생상태(parasitism)”로 이해된다. 이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존성을 적극적인 의미에 바라볼 경우 의존성은 사물이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성장자가 “상호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Newbury, 1956: 238).

미성숙의 의존성은 적응과정에서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상호의존’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환경과 적극적으로 관련을 맺어야만 한다. 이 관련성으로 인해 적응의 양태인 탐구와 적응의 구성요소인 경험, 습관, 가치가 존재할 수가 있다.

미성숙은 이전 적응과정에서 형성된 경험, 습관, 가치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적응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적응과정의 산물들을 보존

하는 힘을 지녀야만 한다. 그렇다면 ‘미성숙의 보존력’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미성숙의 보존력의 형성은 적응의 산물인 경험, 습관, 가치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가늠할 수 있다. 즉, 초기의 적응과정에서 유기체는 질적인 행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 행위는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이 총체적으로 엮어진 ‘경험’을 의미한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기체는 후속되는 적응과정에서 이전에 형성된 경험의 구성요소를 재구성하게 된다. 재구성으로 인해 이전에 형성된 경험은 후속되는 적응과정에서 연속성을 띠게 된다. 적응과정에서 재구성된 경험은 유기체에게 ‘습관’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기체는 적응을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 유기체의 적응과정에서 이전에 형성된 경험과 습관이 차후의 적응과정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보증할 수가 없다. 경험과 습관의 실효성을 판단함으로써 유기체는 환경의 변화에 재적응할 수 있다. 경험과 습관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유기체에게 ‘가치’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유기체는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경험’이 시발점이 되어 습관과 가치가 파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기체의 경험으로 인해 습관과 가치가 형성되기에 미성숙의 보존력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성숙의 보존력은 Dewey의 미성숙의 두 번째 특징인 ‘가소성(plasticity)’에 해당된다. Dewey는 가소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가소성은 근본적으로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경험에서 배운 것을 나중의 문제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능력이다. 가소성은 지나간 경험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행위를 수정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소성은 ‘성향을 발달시키는 능력’이다(Dewey, 1916: 53).

가소성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전에 형성된 것을 차후의 상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성장은 미성숙의 특징인 ‘의존성’과 ‘가소성’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형성된 경험, 습관, 가치를 누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성장

은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가 종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탐구에 의해 형성된 경험, 습관, 가치의 관계적 요소가 누적되어 환경의 변화에 대해 '최적화된 적응력'을 지닌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IV. 결론

Dewey의 탐구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 유기체가 삶을 영위해 가는 생존의 불가피한 존재방식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탐구를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다. 즉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내는 문제해결력, 지식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Dewey의 탐구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으로는 탐구가 왜 삶의 양태로 '삶의 전반'을 구성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Dewey(1964: 102)는 탐구를 생활의 모든 국면과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의 탐구에 대한 정의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탐구는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내재된 '유기적인' 개념이다. 즉, 그의 탐구는 인간을 비롯한 유기체가 환경과의 관련성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하고 있는 양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기체가 환경에 대해 생활하고 있는 모습에서 Dewey는 삶의 논리를 밝힐 개념을 도출해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에게 삶의 논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형성하게 된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도 내포한 것이다. 이것은 Dewey가 LOGIC: THE THEORY OF INQUIRY에서 탐구의 존재론적 모체를 '생물학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는 연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그의 탐구를 문화적인 측면에 국한시켜 거론하는 것은 지엽적인 해석인 것이다. 연구자는 지엽적인 탐구의 해석에서 벗어나 Dewey의 탐구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양태로 규정짓고자 하였다.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는 유기체의 삶의 전반에 내재된 것이기에

Dewey의 경험, 습관, 가치, 성장은 탐구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탐구로 인해 형성된 개념인 것이다. 탐구는 특정한 형태를 지닌 것이 아니라 유기체가 존재를 유지해 가는 양태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기에, 탐구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기체의 '적응의 시점'에 따라서 경험의 형태로, 습관의 형태로, 가치의 형태로, 성장의 형태로 구현된다. 유기체는 시초부터 경험이라는 질적인 행위를 형성하지 못하며, 습관을 형성할 수도 없고, 경험과 습관이 환경의 변화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가치를 형성할 수도 없으며, 경험, 습관, 가치가 누적된 상태인 성장에 이를 수도 없다. 즉 탐구를 통해 유기체의 행위는 경험, 습관, 가치, 성장으로 '순차적'이며 '누적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경험, 습관, 가치, 성장은 고립된 채로 유기체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기체의 존재유지 방식인 탐구로 인해 상관성을 지니게 된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본론에서 경험, 습관, 가치, 성장을 탐구와의 관련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즉, 유기체의 이전 적응과정에서 형성된 '경험'은 탐구의 산물로써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유기체가 구성해낸 질적인 행위이다. 이 행위로 인해 후속되는 환경의 변화에서 유기체는 재적응을 할 수 있다. 적응과정에서 경험은 유기체에게 연속적인 행위를 하도록 조력하게 된다. 이전의 적응과정에서 형성된 경험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험의 구성요소를 재설정하게 된다. 즉, 경험의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의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유기체는 효율적인 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 행위는 적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기체의 행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의해 재구성된 경험은 유기체에게 '습관'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 습관으로 인해 유기체의 경험은 차후의 탐구에서 연속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다. 끊임없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기체는 재적응을 해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전에 형성된 경험과 습관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응의 실효성을 보증할 수 없다. 따라서 적응에 대한 경험과 습관의 실효성을 판단해야만 유기체는 신속히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이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유기체의 적응에 있어 ‘쓸모로써의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유기체에게 쓸모인 경험과 습관에 대한 판단은 ‘가치’의 형태로 적응과정에 존재하게 된다. 유기체의 적응양태인 탐구로 인해 형성된 경험, 습관, 가치는 차후의 환경의 변화에서 유기체의 효율적인 재적응에 조력하게 된다. 이전의 수많은 적응과정을 통해 형성된 경험, 습관, 가치의 구성요소들의 관계는 확장된 형태를 띠게 된다. 이 형태는 끊임없는 적응과정에서 유기체의 행위에 누적되게 된다. 이 누적된 행위는 유기체에게 ‘성장’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성장은 환경에 적응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대해 유기체가 ‘최적화된 적응력’을 지닌 상태로 파악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경험, 습관, 가치, 성장은 탐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탐구로 인해 ‘순차적’이며, ‘누적적’인 변화를 해가는 유기체의 존재유지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Dewey의 탐구를 환경의 변화에 대해 유기체가 존재를 유지하는 적응양태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그의 경험, 습관, 가치, 성장 개념은 탐구라는 전경(全景)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과정의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에서 Dewey의 탐구, 경험, 습관, 가치, 성장 개념은 분절적인 의미로써 해석되어 왔다. 이런 해석에서는 탐구, 경험, 습관, 가치, 성장 개념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 즉 Dewey의 탐구, 경험, 습관, 가치, 성장 개념은 저마다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개념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선행연구의 한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Dewey의 경험, 습관, 가치, 성장을 삶을 구성하는 요소로 파악하기 위해, 그의 탐구를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양태로 설정하여 각 개념들을 탐구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재해석하였다. 연구자의 Dewey의 탐구에 대한 재해석에서 탐구는 경험, 습관, 가치, 성장 개념의 토대가 되는 모체 개념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참고문헌

- 김대호(1975). John Dewey의 이론학에 관한 탐구의 이론. *教育學研究* 제13집. 61-68. 한국교육학회.
- 김민남(1971). John Dewey의 探究理論에 관한 一研究.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Vol. 7. 70-80.
- 송도선(2004). Dewey에 있어 경험과 교육의 관계. *教育哲學* 제25집. 61-77. 한국교육철학회.
- 이돈희(1994). 존 듀이.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정모(2008). 마음의 체화적(embodied) 접근 : 심리학 패러다임의 제6의 변혁(Embodied Mind Approach : The 6th Revolution in the Paradigms of Psychology). 2008년 겨울 제43차 학술대회 논문집. 143-152. 한국실험심리학회.
- 정호표(1987). Dewey의 교육목적론과 탐구. *教育哲學* 제5집. 179-195. 한국교육철학회.
- 정해일(2009). 듀이의 교육환경론과 교실 민주주의.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rrett, W.(1941). On Dewey's Logic.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50 No. 3. 305-315.
- Broudy, H. S.(1960). Democracy and Education as a Pedagogical Problem. *Educational Theory*. Vol. 10 No. 1. 40-49.
- Dewey, J.(1902). *The child and the curriculum*.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박철홍 역(2004). *아동과 교육과정/경험과 교육*. 서울 : 문음사.
- Dewey, J.(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 Dewey, J.(1920).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New York : Henry Holt and Co.

- Dewey, J.(1929). The Quest for Certainty. In J. A. Boydston(ed.). (1984). *John Dewey : The Later Works* Vol. 4. Carbondale and Edwardsville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Dewey, J.(1964). *Logic : The Theory of Inquiry*.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Green, J. L.(1976). The Deweyan Growth Metaphor and the Problem of Sufficiency. *Educational Theory* Vol. 26. 365.
- Kaufmann, F.(1959). JOHN DEWEY'S THEORY OF INQUIRY.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56 No. 21. 826-836.
- Landmann, M.(1969). *Philosophische Anthropologie*. Berlin • New York : Walter de Gruyter. 진교훈 역(1983). *철학적 인간학*. 서울 : 경문사.
- Newbury, D. J.(1956). A Search for the Meaning of Discipline in Dewey's Theory of Growth. *Educational Theory* Vol. 6. 238.
- O'Connor, J.(1953). Indeterminate Situation and Problem in Dewey's Logical Theory.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50 No. 25. 753-770.

<Abstract>

A Consideration on the Change of Organical Life and Dewey's Concept of Inquiry - Focus on Dewey's LOGIC : THE THEORY OF INQUIRY -

Lee, S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newly define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Dewey's concept of inquiry. A precedent studies on the Dewey's concept of inquiry focus on problem-solving ability, method of acquiring knowledg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al end and inquiry, concept deriving from interaction between organism and environment. This study will characterize Dewey's concept of inquiry as an organism's mode of adaptation to the changing environment.

The life of organism including human-being is layed in a continuity of change. To change presuppose a movement. The pivotal point of change has a certain mode. The organism constantly move in interaction to the environment and lead their lives as a result of their movements. The life does not exist in a determinate situation but consist of continued indeterminate one. That organism including human-being lead their own lives is only a continued process that convert indeterminate situation to determinate one. Here, to convert indeterminate situation to determinate one implies that the phases in their lives are progressing towards the situations better than those of now. As for Dewey, the mechanism that shift indeterminate situation to determinate one is inquiry. The inquiry that lead the indeterminate

situation to determinate one is a universal principle of the nature, which turns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ltered by interaction between the organism and environment to those of the lives of organism. In terms of this, Dewey(1964: 19) mentions that inquiry is an adaptation of means to consequences in the activities of living creatures. Accordingly, the inquiry as a mode of adaptation in an organism is to become the most generic form of naturalistic theory which exists in every area of life and in every aspect of every area of the organism. Dewey's concept of experience, habit, value, and growth can be regarded as the products gained from its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 In other words, Experience is organism's qualitative action formed from inquiry as an organism's mode of adaptation. Habit is mode of organical action that leads to continuous experience in the subsequent adaptation process. The value is to judge criterion which effectiveness of earlier experience, habit formed in the process of adaption. Growth is optimized adaptability toward environment that constituent of experience, habit, value formed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is accumulated. Therefore, the inquiry as a mode of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 will underlie the aforementioned concepts.

Conclusively, the inquiry in an organism including human-being can be characterized as a mode of an organism's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

Key Words: Inquiry, a Mode of Adaptation, Experience, Habit, Value, Growth.

(2011. 3. 7 원고접수 / 4. 8 심사완료 / 4. 11 게재확정)